

### 화순 '친환경 생활용품 교육' 운영

다음달 2일부터 교육생 20명 모집... 탄소중립 실천

화순군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생활용품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 생활용품반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화순 주민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 신청은 6월 2일부터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061-379-5434, 5456)에 전화로 하면 된다.

교육은 팜프리 비누, 고체 샴푸바, 고체 치약, 설거지 비누 등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이론과 실습으로 6회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일부 자부담이다.

교육은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교육 일정 등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정에서 활용도 높은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교육으로 탄소중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주유현 기자

### 나주사랑상품권 '10% 할인' 이달 말 종료

국비예산 소진... 다음달부터 '5% 하향' 조정

'나주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기간 조만간 종료된다.

나주시는 국가 지원예산 소진으로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를 오는 31일 종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상품권 할인율은 다시 5%로 하향 조정된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상품권 구매 시 역면가의 10%를 특별 할인해왔다. 이달 20일 기준 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지류상품권 290억원, 카드상품권 142억

원 등 총 432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주시는 올 하반기 추석명절 연휴에 맞춰 10% 특별할인을 재개하고, 당초 계획한 10% 할인 판매 목표치인 59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개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5월 현재 카드형 상품권 누적 회원수는 1만66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정찬군 나주시장은 "상품권 할인율 유지를 위한 국고 예산 확보에 힘써 지역경제와 가정을 위한 착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서철훈 기자

### 장성 '찾아가는 치매 환자 센터' 운영 재개

내달부터 읍·면 보건지소 순회 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이 '찾아가는 치매 환자 센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6월부터 읍·면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토발공예, 원예치료, 요가 활동 등 인지 자극을 통해 방문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군은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치매 선별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검진과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서 검진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주저 말고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군은 '치매 치료 1번지'답게 치매에방교실 운영,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 약제비 및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심재식 기자

## 장흥 80년 역사 '옛 부산교' 안전하게 보존한다

안전난간·파고라 설치 등 시설물 보수·보강

군민 안전 보행·경관 조성... 역사적 산물 보존

장흥군은 80년 세월을 버텨온 '옛 부산교'의 시설물을 보강해 보존 활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길이 144m, 폭 5.5m 규모로 지어진 부산교는 광복이후의 토목구조 형식을 띠고 있는 교량 구조물로서 사탑이나 말뚝이 통행하는 다리가 고작이었던 시절에 획기적인 건설 인프라로 설치된 교량이다.

현재는 새로 생긴 튼튼한 다리에 제 역할을 내어주고 지역민들의 걷기와 자전거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다. 준공 후 8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장흥 읍내에서 부산면으로 탐진강을 횡단하여 이동하는 다리로서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며, 옛 교량형식을 찾기가 쉬운 토목공학 학생들의 현장견학 장소이기도 하다.

장흥군은 오랜 시간 지역민과 함께 해온 옛 부산교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노후 교량으로 철거되는 것을 막고 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군은 먼저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을 세웠다.

하중 초과를 막고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제한높이 2.3m 이하로 차량능



기계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강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군민의 안전한 보행과 경관 조성을 위해 안전난간과 파고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

면 걷기와 자전거 산책로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치가 높은 역사적 산물을 보존하여 주민들의 생활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 함평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관내 21개 농가 대상... 축산용 약취저감 미생물제 공급 개시

함평군이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함평군은 25일 "지나해 농립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약 1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취 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축산용 미생물(사료첨가제, 환경개선 및 분뇨

처리제)를 공급, 축산약취 저감 실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우수 미생물 제품을 공급할 업체를 모집했으며, 심사 및 효능평가 등을 통해 사료첨가제 3개 제품, 환경개선 및 분뇨처리제 3개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들은 약취 민원이 심한 관내 21개 농가(양돈 12, 한우 3, 젓소 3, 산란계 3)에 약 10개월 간 무상으로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 기간 약취 모니터링 및 지표분석, 농가 맞춤형 컨설팅, 실증 데이터 수집·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 최적의 활용 모형을 개발해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김환동 축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사 약취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축산 환경 조성으로 '청정함평'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정섭 기자

### 영광 발전소 주변지역 농기계 보급 업무협약 체결

군·한빛원전·홍농읍 이장단, MOU... 22개 마을 지원



영광군은 지난 23일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와 홍농읍 이장단 등 3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22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협약내용은 '벼 육묘상자 적재 이송기 보급사업'으로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동 이용이 가능한 농기계를 22개 마을

에 지원하고 사용 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관하는 내용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빛원전력본부 이학용 처장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농기계를 신속하게 구입·보급하여 적시 적소에 투입한 건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이다"며 "공공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수 권한대행 김장오 부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의 농작업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농기계 공동이용은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분야 신사업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중민 기자

### 담양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담양군이 25일부터 6월 말까지 2/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으로는 6개 면 중에서 대전면과 가사문학면 2개 면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실태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반은 군 담당자 4명과 면 업무담당자 2명 등 총 6명으로 편성했다.

주요 점검 및 단속 대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의 무단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행위와 무단 토지형질변경, 축목벌채, 물건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기간 예방차원의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시정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분기마다 특별 단속 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담양농·특산물 전문몰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담다

담양장터 OPEN

건강한 자연을 담은 담양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